

출판 번역에서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교정교열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이 상 원
(서울대)

1. 머리말

출판 번역에서 번역문이 반드시 거치는 것이 교정교열 과정이다¹⁾. 김정순(1999)과 안인희(1999)를 참고하여 이상원(2007, 2009)이 정리한 바에 따르면 교정교열은 ‘단어 이하 수준에서 문장 이상 수준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이다. 다시 말해 번역가가 번역 과정에서 저지를 수 있는 실수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교정교열이다.

이상원(2009)의 교정교열 사례 분석을 보면 교정교열의 구체적인 양상이 드러난다. 어휘적 표현적 수정은 물론이고 단락 조정(합치기/나누기), 장과 절의

1) 번역이 아닌 국내 저술 원고의 경우에도 책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교정교열 단계를 밟게 된다. 문학 작품보다는 실용서에 대한 교정교열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장르별 차이도 존재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번역 원고의 경우로 논의를 한정한다.

제목 수정이나 삽입, 목차 순서 조정, 인용구 축약, 책 제목 결정 등 폭넓은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번역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더 좋은 출판 도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입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데 교정교열은 번역가의 번역문에 개입하고 조정하는 작업이므로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라는 문제와 밀접히 연결된다. 일차적으로 번역가에게는 신의 성실한 번역문, 즉 교정교열 해야 하는 잘못된 부분이 지나치게 많지 않은 번역문을 생산할 책임이 있다. 다른 한편 교정교열 결과에 동의할 수 없을 때 자신의 번역문을 유지할 권리도 있다.

본고는 연구자가 번역가의 입장에서 경험한 출판번역의 교정교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번역가의 책임 및 권리를 논의하고자 한다. 논의의 밑자료를 번역 계약서, 그리고 번역가 납품 원고와 최종 출판 원고를 일부 대조 분석한 결과다.

본고의 논의는 교정교열과 관련된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에 한정된다. 그럼에도 출판번역가의 책임과 권리라는 대주제에 접근하는 한 걸음의 의미는 지니게 되리라 기대한다.

2. 분석 사례 소개

이 글의 분석 대상이 된 번역 도서는 『마음의 작동법-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이다. 원문 도서는 *Why we do what we do-Understanding self-motivation* (Edward L. Deci & Richard Plaste, Penguin, 1995)이었는데 심리학자인 주(主)저자 에드워드 데시가 25년 동안의 실험 및 관찰 연구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보상과 처벌이 인간 행동을 결정한다는 행동주의 심리학에 반기를 들고 외적 동기부여보다 내적 동기부여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 중심을 이룬다.

이 책의 번역 출판 과정은 다음 <표 1>과 같았다. 2011년 1월 31일에 계약이 체결되어 3월 30일에 번역문이 납품되었다. 그런데 4월 10일에 출판사는 번역문을 조금 더 다듬어달라고 요청하였다. 번역가는 출판사가 지정한 기간인 열흘 동안 번역문을 다시 검토한 후 4월 20일에 최종 납품하였다. 5월 4일, 출

판사는 ‘번역 상태가 기대한 것에 부족하다’며 외주로 운문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운문 비용 일부를 번역료에서 차감하겠다고 통보하였다. 약 두 달 후인 7월 15일에 도서가 출간되었고 며칠 후 출판사는 운문 비용을 차감한 번역료 최종액을 통보하였다.

< 표 1. 분석 대상 도서의 번역 출판 과정 >

2011년 2월 1일	번역 계약 체결
2011년 3월 30일	번역문 납품
2011년 4월 10일	번역문에 대한 재검토 요청 받음
2011년 4월 20일	재검토를 거쳐 번역문 최종 납품
2011년 5월 4일	외부 운문작업 발주 통보 받음
2011년 7월 15일	번역도서 출간
2011년 7월 18일	운문 비용 차감한 번역료 최종액 통보 받음

이상원(2009)에서 분석한 교정교열 사례²⁾와 비교해 보면 본고의 사례는 1) 번역 품질에 이의가 제기되었다는 점, 2) 운문 과정을 거쳤다는 점, 3) 운문 비용을 번역가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이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후에 상술하겠다.

본고는 운문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번역가가 납품한 번역문과 최종 출간 도서를 대조 분석하였다. 최종 출간 도서 기준으로 총 270쪽에 달하는 분량이어서 일부분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프롤로그와 열한 개 장, 에필로그로 이루어진 전체 분량 중에서 프롤로그와 1장(12-45쪽), 5장 일부(105-111쪽), 9장 일부(187-196쪽)를 선정하였다. 선정한 부분은 총 51쪽으로 전체의 1/5 정도이다.

분석 범위를 이렇게 선정한 이유는 전체 원고의 앞, 중간, 뒷부분을 고루 살피기 위해서이다. 또한 <예 6>의 목차에서 확인할 수 있듯 1장과 5장, 9장은 각각 1부, 2부, 3부의 시작 부분이어서 내용의 흐름이 달라지고 이에 따라 문체나 어휘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2) 이상원(2009)의 분석 사례 도서와 본고의 분석 사례 도서는 우연히도 동일한 출판사가 출판한 것이다. 번역가도 본고의 연구자로 동일하다. 두 사례의 차이가 출판사의 교정교열 성향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여기서 어느 정도 차단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겠다.

3. 운문과 교정교열 - 개념의 통합

앞서 사례 소개에서 본고의 분석 대상 납품 번역문이 품질 이의를 받아 외부 운문 과정을 거쳤다고 하였다. 운문이란 무엇이며 이는 교정교열과 어떻게 다를까?

운문(潤文)의 사전적인 뜻은 ‘글을 윤색함’이다(국립국어원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 그러면 윤색(潤色)이란 무엇인가? ‘윤이 나도록 매만져 곱게 함’이라는 뜻이다. 운문은 출판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이지만 정확한 개념 정의는 찾기 어렵다. 또한 번역 원고 뿐 아니라 국내 저술 원고도 운문 과정을 종종 거치곤 한다.

교정교열이 잘못을 바로잡는 작업이라고 하면 운문은 잘못을 바로잡는 차원을 넘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매만지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머리말에서 언급했듯 교정교열의 실제 사례에서도 잘못 바로잡기를 넘어선 다양하고 폭넓은 조정 작업이 나타났다. 결국 운문과 교정교열이라는 두 개념은 경계가 불분명하게 된다.

이성복(2010)³⁾ 또한 ‘직업으로 교열하는 이들은 잘못이 눈에 띄는 대로 교정도 하고 교열도 하고 운문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 교열인은 교정 교열 운문의 경계를 긋기 어렵다.’라고 하였다. 교정교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운문 작업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조사나 부사 하나가 바뀌어도 문장 전체를 손봐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수궁이 가는 주장이다.

운문과 교정교열을 구분하기 어려운 것에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다. 분석 사례에서 번역가가 납품한 번역문은 외부 운문 작업을 거쳐 다시 출판사 편집자의 손에서 수정되었을 것이다. 편집자 교정교열본, 편집자 교정교열본에 대한

3) 블로그(<http://blog.naver.com/12sungbok?Redirect=Log&logNo=40102487198>)에서 가져온 글이다. 이성복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판실에서 일하면서 30여 년 동안 교정 교열 운문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어 맛이 나는 쉬운 문장’(2007), ‘실무자를 위한 틀리기 쉬운 맞춤법’(2009) 등의 저서도 출간한 경력이 있어 여기에 인용한다.

번역자의 수정, 최종 출판본을 비교한 이상원(2009)에서 단계별로 계속 원고가 수정되었던 것을 보면 본고의 사례에서도 운문 이후 원고, 초교 이후 원고, 2교 이후 원고에 차이가 있었으리라 추측된다. 하지만 연구자가 입수할 수 있는 자료는 납품 번역문과 최종 출간 도서뿐이다. 운문과 교정교열을 구분하여 검토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고에서는 운문과 교정교열을 유사한 개념으로 통합 하여 보며 ‘교정교열’로 통칭하려 한다. 이러한 교정교열은 번역물 납품 후 도서 출판에 이르기까지 번역문에 가해지는 수정과 조정을 모두 포함하게 된다.

4. 번역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번역가의 일차적인 책임은 질 높은 번역문을 제때 납품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본고 분석 사례의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2011년 1월 31일에 체결된 계약서를 보자. 총 10조로 이루어진 번역 계약서에서 품질과 관련된 조항은 3조와 4조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밑줄은 연구자가 표시한 것임).

3조 (원고의 인도) 번역자는 모년 모월 모일까지 상기 도서를 책임 있게 번역하여 출판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4조 (내용의 책임과 완성도)

- 1) 번역자는 위 저작물의 번역상의 문제로 타인의 저작물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 2) 위 저작물에 의해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그 결과 출판권자 및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히는 경우 번역자는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3) 출판권자는 번역자가 인도한 원고의 번역 상태가 출간에 적합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번역자에게 수정 보완할 것을 요청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조는 납품 기한 준수를 요구하며 번역 품질과 관련해 ‘책임 있는 번역’이

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4조는 ‘타인의 저작물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번역’, 그리고 ‘출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번역’을 요구하는 조항이다. 앞서 <표 1>에서 밝혔듯 출판사는 1차 납품한 번역물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였는데 이는 계약서 4조 3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출판사는 번역사 납품본이 출간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여기까지 보면 분석 사례의 번역가는 제대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책임 있는 번역’과 ‘출간에 적합하다고 판단된 번역’, 그리고 5월 4일에 출판사가 언급한 ‘기대한 번역 상태’가 무엇이나 하는 점은 여전히 모호하다. 번역가가 납품한 번역문이 출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납품된 번역문이 어떻게 수정되어 최종 출간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 의문의 답을 구해 보자.

납품 번역문과 최종 출간본을 비교한 결과 전체 문장의 90% 이상이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문장이 조금씩이라도 바뀐 셈이다. 이는 이상원(2009)의 사례에 비해 수적으로 대단히 많은 것이다. 이상원(2009) 사례가 운문 과정 없이 편집부의 교정교열 과정을 거친 반면 본고 사례는 외주 운문 과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문장 다듬기가 한층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문장 수정의 방식은 어순 바꾸기, 어휘 대체하기, 문장 구조 변경하기 등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났다.

<예 1>을 통해 번역문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예 1>은 프롤로그의 첫 문단, 그러니까 본문이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다. 납품 번역문 기준으로 총 일곱 문장으로 구성된 문단인데 수정되지 않은 문장은 하나도 없다. 수정된 부분이 눈에 쉽게 들어오도록 일곱 부분으로 나누어 줄 바꿈을 하고 최종 출간본에서 바뀐 곳에는 번호를 붙여 표시하였다.

<예 1> 문장과 표현의 변화

번역가 납품본	최종 출간본 (12쪽) ⁴⁾
삶의 스트레스와 여러 압박 요인을 헤치고 나아가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무책임한 행동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다.	①우리는 ②살아가면서 갖가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 그것을 헤치고 나아가며 발버둥 치다가 결국 무책임한 행동으로 내몰리기도 한다.

이들이 경험하는 소외와 좌절은 무수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③ <u>사람들이</u> 경험하는 소외와 좌절은 무수히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거리와 가족 안에서의 폭력은 일상화되었다.	거리와 ③ <u>가정에서</u> 폭력은 일상화되었다.
학교에서도 폭력이 만연하다. 내부자 거래나 가격 조작은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④ <u>학교</u> 폭력이 ⑤ <u>난무하고</u> 내부자 거래나 가격 조작은 ⑥ <u>이제</u> 관행이 되다시피 했다.
비만과 거식증은 전염병처럼 번진다. 과도한 부채에 시달리는 이들도 적지 않다.	비만과 거식증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⑦ <u>감당하기 힘든 빚에 허덕이는</u> 이들도 적지 않다.

번역문의 첫 번째 문장은 두 문장으로 나뉘면서 ‘사람들이’라는 주어에 ‘우리는’(①)으로 교체되었다. ‘삶의 스트레스와 여러 압박 요인’이라는 표현은 ‘살아가면서 갖가지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는다’(②)라는 문장 형태로 풀어 써 주었다. 번역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주어에 ‘이들이’에서 ‘사람들이’(③)로 교체되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가족 안에서의’가 ‘가정에서’(④)로 바뀌었다. 네 번째 부분의 두 문장은 최종 출간본에서 한 문장으로 합쳐졌고 ‘만연하다’라는 술어가 ‘난무하다’(⑤)로 바뀌었으며 ‘이제’(⑥)라는 부사가 삽입되었다. 다섯 번째 부분의 두 문장도 한 문장으로 합쳐졌으며 ‘과도한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빚’(⑦)으로 풀어 써 주었다.

여기서 교정교열의 목적은 매끄럽게 잘 읽히는 문장을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방법은 일관되지 않다. 번역문의 한 문장을 둘로 나누는가 하면 번역문의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기도 한다. 명사 형태를 풀어쓰기도 하지만 (②, ⑦) 풀어쓴 문장을 축약하기도 한다(④). 번역가 납품본과 최종 출간본 중에서 무엇이 더 매끄럽게 잘 읽히는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번역가와 교정교열자의 서로 다른 문체적 특성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⁵⁾

- 4) 이후 예시에서는 최종 출간본 텍스트에 대해서만 출처 쪽수를 제시한다. 번역사 납품본은 개인적으로 소유한 한글 파일 형태여서 쪽수 제시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기 때문이다.
- 5) 이와 관련해 그린비 출판사 블로그의 내용을 언급해 둔다. 이 출판사는 교정교열의 첫 번째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교정교열은 편집자가 ‘집필’을 하는 장이 아닙니다. 글에는 글쓴이 저마다의 스타일

매끄럽게 잘 읽히는 문장을 만들기 위한 교정교열 작업의 방향이나 효과가 다소 의문스러운 것과 달리 보다 명확히 드러나는 교정교열 방향도 있다. 학술 도서의 성격을 가능한 한 축소한다는 방향이 그것이다.

<예 2>는 심리학에서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개념 연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장이 삭제된 경우이다. 심리학자이자 현직 교수가 쓴 원문 도서는 전문 학술서는 아니라 해도 학술적 성격이 두드러진다. <예 2>에서 생략된 부분도 과학적 방법론 도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학술적 언급에 해당한다.

<예 2>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생략

번역가 납품본	최종 출간본 (27쪽)
<p>자율성과 소외에 대해 동기 부여를 바탕으로 연구하면서 라이언과 나는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했다. 이들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동의 작용인(능동 원인)이라고 부른 개념, 즉 선행 사건이 행동을 이끈다는 사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다. <u>과거에는 심리적 자유와 같은 개념 연구를 주로 인문학자나 철학자들이 해 왔지만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 방법론을 도입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u></p>	<p>동기 부여의 기초가 되는 자율성과 소외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이 방법론은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동의 작용인(능동 원인)이라고 부른 개념, 즉 선행 사건이 행동을 이끈다는 사고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개발한 것이다.</p>

<예 2> 외에도 학술적인 언급이 생략된 부분은 대조 검토한 부분에서 두 곳이 더 있었다. 그 중 하나는 문단이 통째로 삭제된 경우였는데 그 문단은 다음과 같았다.

이 실험이 실제로 중요한 현상을 드러낸 것이며 그 결과는 1장에서 제기한 질문들과 밀접히 연결된다고 생각해 보자. 물론 심리 실험실에서 몇 번

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순 도치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줄임말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조사 ‘이, 가’보다 ‘은, 는’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지요. 이런 글쓴이의 스타일을 몽땅 뒤집어서 자기 글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이렇게 고치면 자신은 읽기 편하겠지만, 스타일을 잃어버린 글은 이미 글쓴이의 글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루어졌을 뿐인 실험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그 문제는 일단 제쳐두도록 하자. 이후 다양한 상황에서 실험이 반복된 결과 이미 어느 정도 신뢰성을 얻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실험의 가치, 이의 제기 가능성, 신뢰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단이었다. 심리학자인 원저자의 입장에서는 실험 결과를 제시하면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었고 번역가는 그대로 번역하였지만 이는 교정교열 과정에서 모두 삭제되었다.

이러한 문장과 문단의 삭제로 미뤄볼 때 출판사는 이 책의 학술적 성격을 가능한 한 줄여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교양도서로 출판하려는 의도였음이 드러난다. 대중적인 판매를 목표로 한 출판이었으므로 충분히 수공이 가는 태도이다. 그런데 번역가 또한 작업 과정에서 복잡한 문장이나 학술적인 텍스트를 지향하지는 않았다. 일반 대중을 위한 도서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번역가 납품본도 원문 도서에 비하면 교양서에 한층 가까운 형태였다. 다만 출판사가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정을 기대하는지 알지 못했고 따라서 출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다.

본고의 분석 사례에서 번역가는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도, 번역 단계에서도, 심지어는 재검토를 요청받는 단계에서도 출판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지 전달 받지 못했다. 결국 번역가는 원문 도서의 특성과 번역 도서의 예상 독자를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번역 작업을 했다. 재검토 요청이 왔을 때에도 구체적인 지침이나 수정 방향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번역가는 전체 번역문을 다시 읽어보고 점검한 후 특별한 문제점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납품할 수밖에 없었다.

비문이나 미숙한 표현, 논리적 단절이 번역문에서 자주 나타났다면 번역가에 대한 책임 추궁이 당연하다. 하지만 출판사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받지 못한 번역가가 나름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번역문을 생산한 경우라면 어떤가? 이때에도 번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본고의 분석 사례에서 번역가는 납품본이 출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에 책임을 지고 외주 운문 비용까지 부담하였다. 번역 품질에 대한 책임이 경제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이다. 운문 비용은 총 번역료의 1/4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연구자는 번역가로서 십년 이상 일해 왔지만 품질에 대한 항의를 받은 것은 그 사례가 처음이어서 무척 당혹스러웠다. 또한 번역본 교정교열 비용을 번역료에서 차감하는 것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접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더욱 놀라웠다.

외주 운문 비용 부담이라는 경제적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번역가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협상하지 못했다. 번역문의 문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전달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대 이하의 번역 품질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출판사의 요구에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납품 번역문이 어떤 면에서 출판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는 번역 도서가 출간된 후에야 검토할 수 있었는데 운문 비용을 차감한다는 결정은 그보다 훨씬 앞서 이루어졌다.

번역가가 운문 비용을 부담한 본고의 사례는 물론 극단적이다. 하지만 극단적인 만큼 번역가의 책임에 대해 성찰하는 기회도 된다. 베누티는 출판인이 번역가에게 저작권이나 인세를 보장하는데 펍 인색하며 이는 곧바로 번역가의 지위 문제로 연결된다고 하였는데(1995: 9-10) 번역문 교정교열에 대한 경제적 책임까지 번역까지 지게 되었던 본고의 사례는 이보다 한층 열악한 번역가의 지위를 드러낸다고 하겠다.

품질에 대한 책임, 경제적 책임에 이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출간 도서에 대한 번역가의 책임이다. 분석 대상 도서는 번역가의 이름을 달고 출판되었지만 앞서 언급했듯 번역가 납품본 중 90% 이상의 문장이 수정된 상태였다. 무엇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번역가는 출간에 앞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상황에서 번역가는 출간 도서의 번역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출간 도서가 여러 차례 언론에 소개되고 주요 일간지나 교보문고의 월별 추천 도서에도 올랐던 것이 번역가에게는 반갑기보다 곤혹스러운 일이었다.

5. 번역가의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본고의 분석 대상 사례에서는 도서 출간에 앞서 번역가가 교정교열 내용을

통보 받거나 동의하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상원(2006: 39)에 따르면 번역문의 내용 첨삭이나 수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번역가와 의견을 교환하는 경우가 절반 정도라고 하니 번역가를 배제하고 교정교열이 이루어진 본고의 사례가 그리 예외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번역가는 자신이 생산한 번역문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게 된다. 이는 본고 분석 사례의 최종 출간 도서에 번역가가 동의할 수 없는 번역문 수정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로 뒷받침 된다.

<예 3>은 프롤로그 뒷부분에 등장하는 문단이다. 교정교열 과정에서 번역문의 주어가 반복적으로 교체되는 수정이 이루어졌다.

<예 3> 내용 이해를 더 어렵게 하는 수정⁶⁾

번역가 답품본	최종 출간본 (25쪽)
<p>예를 들어 중독과 같은 문제에서는 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독된 사람은 중독 성향이나 충동적 집착에 노예가 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 역학관계는 다른 많은 행동에도 적용된다. 가정, 학교 등의 인간관계에서 출발한 이 역학관계는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내적 심리 과정 및 인간관계 과정을 이해하면 중요한 질문들에</p>	<p>중독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중독되었다는 것은 중독 성향이나 충동적 집착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①중독은 다른 많은 행위자들과 관련되어 있다. ②중독은 가정이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부대끼는 과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③그것을 건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내면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p>

6) 원문(11쪽)은 다음과 같다.

Many people find this idea easy to comprehend in the case of, say, an addict, who is a slave to her addiction, or of an obsessive-compulsive, who is a slave to his compulsions. But the dynamics are just as relevant for many other behaviors. The dynamics begin as interpersonal process in the home, at school, and elsewhere, and are taken in by people in ways that are more healthy, or less. Understanding these processes -the intrapsychic processes as well as the interpersonal ones- allows meaningful answers to important questions. It is an understanding that can help people maintain smoking cessation, nurture an unflagging interest in learning, and perform well in sports. It is also an understanding that is essential for locating and anchoring one's true self amidst the seductive and coercive tides of modern culture.

<p>대한 의미 있는 답변이 가능하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금연을 계속하고 지치는 일 없이 학습하며 뛰어난 스포츠 기량을 보일 수 있다. 온갖 유혹과 압박이 넘쳐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이끌어 나갈 수도 있게 된다.</p>	<p>과정이기도 한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금연에 성공할 수도 있고 지치지 않고 공부에 집중할 수도 있으며, 스포츠 경기에서 발군의 실력을 보일 수도 있다. 유혹과 강제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④이러한 이해 없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 자율성과 진실성을 개발한다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p>
---	--

번역가 납품본 첫 문장에 등장하는 ‘이 개념’이란 앞 문단에 언급되었던 ‘주인-노예 관계’를 말한다(7). 주인-노예라는 이분법이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이 스스로를 자율적으로 이끌 수도, 억압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 3>의 문단은 앞 문단에 대한 보충 설명이다. 번역가 납품본과 최종 출간본을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문장을 자르거나 결합시키는 수정이 이루어졌고 수식을 넣거나 풀어쓰으로써 전체 길이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번역가가 동의할 수 없는 수정은 번호를 붙여 표시한 부분이다. ①②③은 문장의 주어 혹은 목적어가 ‘이 역학관계’, 즉 ‘주인 노예 관계’ 대신 ‘중독’으로 바뀌어 내용 이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중독은 첫 문장에서 사례로 제시한 것에 불과한데 이것이 이후 문장의 핵심어로 반복되고 말았다. 그래서 ③과 같은 경우 중독을 건전한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궁금증까지 낳게 된다. ④와 ④’는 ‘~수도 있게 된다’라는 단순 서술형 문장을 ‘이러한 이해 없이 ~ 요원한 일이다’라는 부정을 통한 강조 문장으로 복잡하게 바꾸었다. 자칫 하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없다’라고 정반대로 읽힐 위험까지 있다.

<예 4>는 번역가가 번역 과정에서 독자의 이해를 위해 축약한 부분을 운문

7) 참고로 <예 3>의 바로 앞 문단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율과 진실성의 문제는 개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 사회의 문화나 인간관계까지 함께 들여다볼 때 그 개념이 한층 더 풍부하고 흥미로워진다. 주인-노예 관계는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 존재하게 마련이다. 인간은 자신을 자율적이고 진실하게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억압하고 확대하고 통제할 수도 있다. 주인이 될지 노예가 될지는 이 이분법을 얼마만큼 조화시킬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24-25쪽)

편집 과정에서 되살려낸 경우이다. 되살려낸 문장은 오른쪽의 밑줄 친 부분이다8).

<예 4> 번역가가 축약한 부분을 되살린 수정

번역가 납품본	최종 출간본 (108쪽)
<p>사회학자 텔콧 파슨스(Parsons)은 전혀 다른(하지만 기능적 면에서는 매우 유사한) 관점을 제시했다. 아이의 탄생을 야만인의 습격에 비유하며 아이가 길들여져야 하는 야만인이고 따라서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이다. 아이가 야만인이라는 이 시각은 아이의 행동을 통제함으로써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여기며 그 면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기계로 보는 시각과 유사하다. 양쪽 모두 사회가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여긴다. 양쪽 모두 사회화 기제가 아이의 ‘자아’를 창조해야 한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양쪽 모두 발달이란 사회가 아이에게 제공해주어야 하는 무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다.</p>	<p>사회학자 텔콧 파슨스(Talcott Parsons)은 기본적으로 위의 접근법과 유사하지만 매우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아이의 출생을 야만인의 습격에 비유했다. <u>인간이 살아 있는 존재라는 데에는 그 역시 동의했지만 건설적인 의미에서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u> 그의 기준에서 인간은 살아 있는 존재이지만 길들여야 할 야만인이다. 아이를 야만인으로 보는 이 시각은 행동을 통제하면 아이가 발전하게 할 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인간을 수동적인 기계로 보는 시각과 통한다. 양쪽 모두 사회가 인간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여기며, 또한 사회화 기제가 아이의 ‘자아’를 창조해야 한다고 본다. 간단히 말해 양쪽 모두 발달이란 사회가 아이에게 제공해주어야 할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p>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데 동의한다’라는, 언뜻 보기에는 맥락 없이 튀어나온 듯 여겨지는 이 부분은 이 문단의 전전 문단에 등장했던 ‘실증적 심리학에서 바라보는 인간은 컴퓨터와 같은 기계적 존재, 즉 죽은 존재다’ 문장과 연결된다. 다시 말해 파슨스는 인간이 기계처럼 죽은 존재라고까지 여기지는 않았다고 해도 진정으로 살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번역가는 이를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 있다고 하기 어렵다’로 간략화하여

8) <예 4>의 밑줄 부분에 해당하는 원문은 다음과 같다(원문 79쪽).

People are alive, he would agree, but not in a constructive sense; they are alive but they are savages who need to be tamed.

처리하였지만 최종 출간본에서는 번역가의 문장을 지우고 원문 번역으로 대체했다. 그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번역가의 전략은 삭제되고 말았다.

<예 4>는 윤문 편집 과정에 대해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번역가 납품본과 원문이 대조 검토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문장 하나하나를 원문 대조하다가 밑줄 친 문장이 빠진 것을 발견하고 추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이상원(2007)에서 교정교열 전문가들이 밝힌 원문 참고 방식과는 대비된다. 문장 단위로 일일이 원문을 대조하기보다는 도착 텍스트 위주로 읽으면서 의미가 불분명하거나 이해되지 않는 대목,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대목에서만 원문 대조 절차를 거친다고 하였던 것이다. <예 4>의 납품 번역문이 의미 이해나 논리적 연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리라 여겨지지는 않고 따라서 이 사례의 번역문은 전체적으로 원문 대조 과정을 거쳤을 가능성이 높다.

<예 3>과 <예 4>는 번역가가 동의할 수 없는 방향으로 번역문이 수정되어 최종 출간되었으므로 번역가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교정교열의 필요성이나 의의를 전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 교정교열을 거치면서 번역문이 개선되고 교양 도서에 걸맞는 모습으로 탈바꿈된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예 5>와 <예 6>이 바로 그러한 경우이다.

<예 5>는 번역가 납품본의 복잡한 문장을 어순 정리하여 깔끔하게 수정한 형태를 보여준다. 수정된 문장은 독자들이 이해하기에 훨씬 좋은 형태이다.

<예 5> 적절하게 다듬어진 문장

번역가 납품본	최종 출간본 (43쪽)
1968년 심리 이론가인 리처드 드샴(DeCharms)은 ‘개인적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는 책을 출판했다.	심리 이론가 리처드 드샴(Richard DeCharms)은 1968년 출간한 책에서 ‘개인적 인과관계 추론’이라는 개념을 강조했다.

이러한 수정은 번역가 납품본에 대한 교정교열을 정당화해준다. <예 4>에서 번역가 납품본의 어색한 문장은 번역가가 원문 어순을 기준으로 작업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제3자의 검토와 수정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브라이언 모습은 저자나 번역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텍스트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10: 37). 그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글로 ①독자가 오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②독자를 잊고 독자나 글의 목적에 적절

하지 않은 내용을 담은 경우, ③ 해당 사회의 언어 규범이나 번역의 규범, 혹은 특정 장르에서의 글쓰기 규범에 맞지 않는 경우를 들었는데 <예 5>의 경우 첫 번째에 해당할 것이다.

<예 6>은 번역가 납품본의 도서 제목과 장 제목이 최종 출간본에서 전면적으로 수정된 것을 보여준다. 도서 제목은 번역가 납품본의 ‘우리 행동의 이유, 자기 동기 부여에 대해’에서 최종 출간본의 ‘마음의 작동법-무엇이 당신을 움직이는가’로 바뀌었다. 이상원(2009)의 사례를 보면 장 제목이 2교, 3교의 단계별 편집과정에서 계속 수정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글의 분석 사례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 6> 도서 장 제목의 변화

번역가 납품본	최종 출간본
1. 권위,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불만	프롤로그. 저항하거나 순종하거나_권위의 두 얼굴
1부. 자율성과 자신감의 중요성 2. 돈 때문에 움직일 뿐 -보상과 소외에 대한 초기 실험 3. 개인의 자율성 욕구 4.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각각의 효과 5. 자신감을 느끼며 세상에 참여하기	1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 01. 보상이 멈추면 동기도 멈춘다 02. 인간은 자율성을 꿈꾼다 03.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 04.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
2부. 관계맺음의 역할 6. 발달을 향한 내적인 힘 7. 사회가 손짓할 때 8. 사회적 세상 속 자아 9. 사회가 잘못 되었을 때	2부. 관계의 힘이 자율성을 키운다 05.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사회와 만나는가 06. 세상에 두 발로 서다 07. 세상 속에서 자아 찾기 08. 개인과 사회의 균형 잡기
3부. 어떻게 할 것인가 10. 자율성을 복돋는 방법 11. 건강을 위한 행동의 촉진 12. 통제외의 외중에서 자율성을 찾기	3부. 자율성을 꽃피우는 5가지 방법 09. 자율성, 어떻게 키울 것인가 10. 건강을 위한 자발적 선택 11. 통제 속에서 자율성 찾기
4부. 결론 13. 인간의 자유가 갖는 의미	에필로그.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

전체 구성을 보면 원문 도서에서 1장과 13장이었던 것을 각각 프롤로그와

에필로그로 분리시킨 것이 눈에 뜨인다. 그리하여 총 13장이었던 원문이 11장으로 정리되었다. 1부, 2부, 3부로 나뉘어 구성되었던 원문 도서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각 장의 제목은 문장 형태로 쉽게 풀어쓰는 방식으로 수정되었다. 예를 들어 번역가 납품본 6장 ‘발달을 향한 내적인 힘’은 최종 출간본 5장 ‘개인의 자유는 어떻게 사회와 만나는가’로, 번역가 납품본 13장 ‘인간의 자유가 갖는 의미’는 최종 출간본 에필로그 ‘인간에게 자유란 무엇인가’로 바뀌었다.

원문 도서를 보면 각 장 내에서 한줄 띄움으로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데 최종 출간본은 한줄 띄움 대신 새로운 소제목을 붙였다. 예를 들어 최종 출간본 4장 ‘자신을 믿고 세상으로 나서라’는 ‘자율은 인간의 삶을 바꾼다’, ‘착한 아이 되기가 남긴 상처’, ‘승진보다 성취감이 좋아!’, ‘남자에게 약이 되고 여자에게는 독이 되는 칭찬’, ‘자신의 능력을 믿고 스스로 결정하라’, ‘스스로 깨닫게 하라’의 여섯 부분으로 새로 구성되었다. 이들 소제목은 최종 출간본의 목차에도 포함되어 독자들이 전체 내용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소제목 없이 한줄 띄움만 있었던 원문 도서의 목차에 비해 정보 전달력이 크게 높아졌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 도서의 면모를 보다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예 5>나 <예 6>과 같은 발전적이고 유익한 수정 사례를 고려하면 번역가에게 타협 없이 본래의 번역문을 지켜낼 권리가 존재한다고 말하기 어렵다. 출판 번역은 원문 도서와 번역 원고, 최종 출간 도서를 둘러싸고 원저자, 번역가, 출판사 편집인, 교정교열 혹은 운문 담당자, 출판사 판매 담당자, 독자 등 여러 참여자가 상호작용하는 영역이다. 번역과 출판 과정이 성공적으로 끝나기 위해서는 번역가 역시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해야 한다. 번역가 납품본이 절대 손대지 말아야 할 신성한 텍스트일 수는 없는 것이다. 촉박한 번역 기한을 맞추는 과정에서 번역가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교정교열 과정에서 번역문에 어떠한 수정이 얼마나 가해지는가 하는 내용을 번역가가 도서 출간 이전에 전달 받는 것,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수정이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고 논의할 기회를 부여 받는 것은 번역가가 확보해야 할 권리이다. 그리고 이 권리는 최종 출간 도서의 번역에 대해 책임을 지기 위한 선결 조건이 된다.

교정교열 과정에서 번역가와 협력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점은 일부 출판인(이상원 2006: 39)이나 교정교열 전문가(이상원 2007)도 인식하고 있다. 그린비 출판사 블로그에 실린 교정교열의 과정에서도 초교에서 ‘주술관계가 꼬이거나 의미가 분명치 않은 문장, 잘못된 번역으로 추정되는 문장은 정리하여 추후 저·역자에게 문의’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본고의 분석 사례처럼 번역가의 동의 없이 번역문을 수정하여 도서를 출간하는 상황이 여전히 존재한다.

물론 교정교열 과정에서 번역가와 의견을 교환한다고 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원(2009)의 사례를 보면 교정교열본에 대한 번역가 검토 단계를 거쳤음에도 번역가가 요구한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예가 있었고 또한 번역가 검토 이후에 수정되어 번역가가 출간 전에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그렇지만 본고의 사례처럼 번역가가 아예 교정교열 내용을 볼 수 없었던 상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으며 따라서 의견 교환 과정의 의의를 평가절하할 수는 없다.

6. 맺음말 –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본고의 분석 사례를 요약해 보자. 번역가는 번역문 납품 이후 품질 항의를 받았다. 그리고 품질 이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책임을 져야 했다. 이 책임은 외주 운문 비용을 부담하는 경제적인 책임으로 이어졌다. 번역 도서가 출간된 이후에야 교정교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어순 변경, 어휘 대체, 문장이나 단락 삭제 혹은 삽입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체 문장의 90% 이상이 수정된 상태였다. 번역가는 자신과 사전 협의 없이 수정되어 출간된 도서의 번역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이다. 교정교열 과정에서 번역가가 수정사항을 검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번역문 생산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번역가가 동의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의 수정도 있지만 이와 함께 번역가가 동의할 수 없는 수정도 이루어진 채 번역 도서가 출간되었다.

이 분석 사례에서 번역가의 권리는 한없이 미약했던 반면 번역가의 책임은 무한히 컸다. 책임은 권리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번역가는 권리 없는 책임을

요구 받았다. 경제적 책임만 해도 그렇다. 이 사례의 번역가는 품질에 책임을 지고 운문 비용을 부담했다. 만약 품질이 월등하게 뛰어나다고 인정 받은 번역문을 생산했을 경우, 그리하여 번역 도서 판매에 크게 기여했을 경우라면 어떨까? 그에 따른 보상이나 권리는 극히 미미하다. 대부분의 번역 계약은, 특히 대량 판매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질 번역료 지급을 기준으로 하여 추가적인 실적 보수가 없기 때문이다.

본고의 분석 사례를 바탕으로 할 때 번역가의 책임과 권리는 어디까지로 정리될까?

번역문의 품질에 대한 번역가의 책임은 번역문이 갖춰야 할 요건을 번역 계약 시점에서 명확히 전달 받았을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여기서 언어적 문법적 오류는 논외이다. 언어적 적합성은 번역물 품질의 기본 조건이기 때문이다. 학술적 측면이 최소화되도록 어휘와 내용을 조정하라는 사전 요청이 있었다면 번역가는 그 요청이 맞출 책임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 지침 없이 번역가가 자율적으로 상황 요소를 판단해 번역 작업을 수행할 경우, 그 자율적 기준이 출판사 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역가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출간된 번역 도서의 번역 품질에 대한 번역가의 책임은 교정교열 과정에서의 수정 사항을 미리 전달 받고 의견 조율을 거쳤을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본고의 사례에서처럼 번역문이 90% 이상 수정되었다면 번역가는 교정교열 이전의 번역문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이다.

교정교열에서 번역가의 권리는 수정 내용을 전달 받고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 받으며 필요한 경우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납품한 번역문을 고스란히 유지할 권리는 없다. 출판 번역은 수많은 참여자가 협력하는 영역이고 번역가 또한 번역과정에서 오류와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정교열 과정에서의 의견 교환이 번역가와 출판사의 견해 차이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여러 단계의 교정교열 중에서 번역가는 대개 한 단계에만 개입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견 교환이 있더라도 최종 출간된 도서에 번역가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교정교열 내용에 대한 검토 기회는 최소한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번역가의 권리이다.

책임과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번역가는 번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출판사가 요구하는 번역 품질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번역을 시작하지 않은 상

태, 도서의 성격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논의가 모호하다면 1/10 가량의 번역이 이루어진 후 번역문을 놓고 번역가와 출판사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 일부 번역문을 검토하면서 출판사는 번역가의 문체와 전략을 파악할 수 있고 그것이 출판사가 지향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출판사의 요구사항을 이해한 번역가는 교정교열 과정에서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 만한 번역문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

본고는 연구자의 개인적 경험인 단일 사례를 바탕으로 삼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이 아니었다면 문제 상황을 인식하기도, 번역가 납품분을 확보해 대조 분석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추후 또 다른 사례와 논의가 보강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정순 (1999) 「단행본 교열 사례 연구」, 『출판잡지연구』 7(1): 90-101.
- 윤일환 옮김 (2010) 『번역가를 위한 편집과 교정』 서울: 도서출판 동인.
- (Mossop, B. (2007) *Revising and Editing for Translators*, Manchester: St. Jerome.)
- 안인희 (1999) 「번역의 의미와 실질적인 문제들」, 『국어문화학교』 3: 189-201.
- 이상원 (2006) 『한국출판번역독자들의 번역평가규범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 이상원 (2007) 「출판 번역의 교정 교열」,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9(1): 73-85.
- 이상원 (2009) 「출판번역의 교정교열 사례 분석」, 『국제회의 통역과 번역』 11(1): 81-113.
- Venuti, Law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A history of transla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국립국어원 온라인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 그린비 출판사 블로그 <http://www.greenbee.co.kr/blog/226> (편집의 본령, 교정교열 - 초교에서 OK교정까지. 2008년 4월 입력)

[Abstract]

Translator's responsibility and right in publishing industry

Lee, Sang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discusses translators' responsibility and right during book translation, revision and publishing process. Researcher's personal experience is used as an example case. In that case, the publishing company wasn't satisfied with translation quality, so the translator had to take moral and economic responsibility for revision process, not knowing what and how her translation being revised. This paper compares the translator's text with the published text and finds out that there are many non-agreeable revisions as well as agreeable ones. Then some questions arise: does the translator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e heavily-revised and published text, does she have right to examine the revised text before publishing? Tentative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ranslators and publishing companies have to agree on translation strategies in the contracting stage. 2) translators need to participate in revision process, checking what and how his/her text being revised.

▶ Key Words: revision, translation quality, publishing industry, translator's responsibility and right

이상원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denise@hanmail.net

관심분야: 출판번역, 번역비평, 문학번역, 번역전략

논문투고일: 2012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12년 3월 12일

게재확정일: 2012년 3월 16일